

Tremper Longman 박사, 하나님은 전사이시다, 세션 5,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종합

© 2024 Tremper Longman 및 Ted Hildebrandt

트렘퍼 롱맨(Tremper Longman) 박사입니다. 신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전사입니다. 세션 5,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합성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악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전쟁의 5단계를 살펴보았으니 전체 그림에 대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그림의 일관성입니다. 예, 우리는 여러 단계를 보았습니다. 특히 신약성서에서 물리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으로의 전환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과 영적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이행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키지 않는 한 죄인인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강조점부터 시작하고 싶은 이유는 이 그림에 대해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려고 시도한 최근 글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고 그들은 선의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결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 대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개인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신성한 전사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결과 인식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나는 1981년과 1982년에 신성한 전사 주제에 관한 논문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40년이 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들의 개념으로 다루어야 했던 메노파

학자들과 같은 소위 평화 교회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특별히 논란이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폭력과 평화주의. 비록 궁극적으로 평화주의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글은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초반과 지금 사이에 일어난 일은 9-11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근본주의 무슬림들이 여호수아서를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신의 폭력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고,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듯이 그 말이 그들을 혼란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전쟁 윤리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저와 우리 대부분은 어느 정도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것을 발견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성경에 강요하는 일에 주의해야 하며, 결국에는 성경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고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가 피해야 할 위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몇몇 작가들의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Crucifixion of the Warrior God이라는 작품에서 이 주제에 관해 많은 글을 쓴 Greg Boyd, The Bible Tells Me So의 Peter Enns, Eric Siebert, 다른 사람.

기본 논제는 구약이 하나님을 폭력적인 분으로 묘사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를 읽으면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적, 영적 힘을 지닌 전사로서. 성경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서 폭력적인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제거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렉 보이드(Greg Boyd)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에 확실히 동의합니다. 경전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제가 왜 그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가 하나님인지를 완벽하게 나타내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고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문화적 적응의 결과이며 Enns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구약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익숙한 용어로 하나님을 묘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묘사된 하나님이 항상 실제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드로 돌아가서 그는 이것이 문화적 적응의 결과이거나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가 무오성을 단언한다고 해도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인간 작가의 타락한 마음.

그리고 그는 특히 신명기 20장에 대해 여호수아는 전쟁의 규칙에 관해 모세의 말을 결코 듣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관련된 다른 많은 문제들 중에서, 신명기 20장은 모세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좋아요, 또 다른 문제는 보이드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구약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극적인 방식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지만 또한 예를 들어 그는 요한계시록에 주의를 돌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를 묘사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예수님 묘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보이드의 작업에 대한 나의 궁극적인 평가는 그가 성경을 설명하고 설명해야 할 텍스트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봄으로써 질문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을 전사로 묘사하는 성경적 묘사에는 일관성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분노 관리 상담을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 많고 공의로우며 재판관으로 묘사하며, 신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이 많고 의로우며 재판관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관성이 있으면 발전도 있다는 것을 이미 인정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물리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으로의 전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4단계, 즉 물리적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복음, 교회 또는 예수님을 홍보하기 위해 결코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폭력을 사용해왔고 때로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우리는 십자군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종교 재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며, 유럽인들이 인도 땅에 침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구약성서 구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태 의사에게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 총을 쏘고, 살해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폭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최악적인 폭력 사용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성한 전사 주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서신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데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힘으로 강건하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준비를 하고 굳게 서라.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영과 믿음과 구원과 같은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밖에 있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에 맞서 싸우십시오. 이 전투는

물리적인 무기로 승리하는 전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 초대받고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약성경에는 영적 전쟁에 대한 확실한 징후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약성서에서 막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처음으로 전투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몇 군데에 대해 제 머리 꼭대기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 중 하나는 이집트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날 내가 이집트의 신들을 이기리라. 그리고 이야기 초반에 이집트 마술사들이 물을 피로 바꾸고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일부 이적과 기사를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은 소진됩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의 신들은 무엇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이 인간 전쟁의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의 영적 세력과 권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전염병이 실제로 이집트 신들의 특정 개념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맞춤형되었다고 제안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것이든, 호피라는 다산의 신인 나일강의 신이 있는 곳입니다.

또는 극적으로는 다양한 이름으로 통하는 태양신이 이집트 판테온의 최고 신은 아니더라도 최고 중 하나인 태양이 어두워지는 현상이다. 이것은 이 신들에 대한 승리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투쟁 뒤에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에는 한 구절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묵시적 환상의 시작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에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에게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 메시지는 사실이었고, 그것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서 그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때 나 다니엘은 3주 동안 슬퍼했습니다.

나는 3주가 지날 때까지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도 먹지 않았고, 입술에 손도 대지 않았고, 로션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눈을 떴을 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이것이 신성한 메신저, 천사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곧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거기에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린 이유를 설명합니다. 기억하세요, 다니엘은 3주를 기다렸습니다. 12절에 “ 다니엘아 네가 깨달음을 얻고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검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고 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들렸고, 나는 그에 응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왕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습니다. 내가 거기 바사 왕과 함께 갇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우러 왔습니다.

이제 나는 장차 너희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설명하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는 미가엘이 이스라엘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와서 도와주는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확실하게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다가갔지만, 내가 페르시아의 영왕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뚫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다니엘의 배후에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의 끝에서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의 영왕과 싸우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초대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전쟁에 초대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의 행위일 수 있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언어를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일어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그 언어가 강압적인 전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악한 영적 세력의 왕국에 더 많은 피해가 가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내부에서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하는 투쟁에 대해 말하는 로마서 7장의 한 구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긴 구절입니다. 14절에서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면 법은 이대로 좋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 곧 나의 죄성에 있는 줄을 나는 아노니 나에게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것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악이 바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다른 법이 역사하여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것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의 누군가를 묘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인이 된 이후의 묘사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모르지만 내 마음 속에는 죄로 인한 투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신성한 전사에게 내가 그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폴의 전투 언어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살과 피의 적들에 대한 구약의 폭력의 윤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헤렘이라는 개념과 주민, 남성,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도시의 완전한 파괴에 관해서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결코 완전히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결과, 즉 가나안 민족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타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바알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등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시대와 같이 정의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자신의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처벌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예일대학교와 그 이전에 풀러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미로슬라프 볼프(Miroslav Volf)의 고찰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유고슬라비아라고 불리던 곳,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사이의 전쟁으로 황폐해진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노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가요? 신성한 사랑은 진노를 초월해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중 일부에게 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나의 마지막 저항은 내가 태어난 지역인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전쟁의 피해였습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20만명이 사망하고 300만명 이상이 난민이 됐다. 나의 마을과 도시는 파괴되었습니다.

내 백성은 날마다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상상 이상으로 잔혹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100일 동안 80만 명이 해킹을 당해 사망한 르완다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학살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할아버지처럼 가해자에게 애정을 포함으로써? 대학살을 비난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가해자의 기본적인 선함을 재확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사상이 불명예스럽다고 불평하곤 했지만, 세상의 악을 보시고도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거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신성한 전사 주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성경적 그림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또한 우리가 구약의 전쟁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주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미리보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과거에 나의 선생님이셨던 메러디스 클라인(Meredith Klein)은 내가 말하려는 것을 일반은총의 시대에 종말의 윤리가 침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은총이란 신학자들이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이생에서 밀과 쭉정이를 분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 좋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그림은 모든 사람이 사후 세계에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정복과 같은 것은 말세 윤리에 대한 침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의 종류를 미리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이 구약성경 본문에 대해 생각하는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가 성경에 나오는 신성한 전사 주제의 폭넓은 범위와 발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지 아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은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세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전체 그림에 가까운 어떤 것도 포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고려할 때 그 그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중요한 은유를 연구한 여러분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신은 전사이다(God is Warrior)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Tremper Longman입니다.

트렘퍼 롱맨(Tremper Longman) 박사입니다. 신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전사입니다. 세션 5,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합성입니다.